

## 기술개발과 국제공동협력

편집인 칼럼



● 羅 柄 扇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우리의 방위산업이 이제는 기술축적과 핵심부품 위주의 개발에 보다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와함께 국내기술에 대한 세밀한 시장조사가 선행, 보완되어야 하겠으며, 불모(不毛)와 같던 이 땅위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개발을 이룩한 업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최근** 무역적자가 1백억불을 상회하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과 함께, 내년에는 1백30억불을 웃돌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가 적자폭 확대의 우려와 신음을 하는 요즈음 가까운 일본은 무역흑자가 급속히 늘고 있어, 심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무역협회는 올해 일본의 흑자폭을 작년보다 약 50% 증가한 7백85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8백35억불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일본을 만든 주역은 바로 「기술」입니다. 지난 8월 발표된 금년도 「일본경제백서」는 일본의 흑자기조는 완전히 정착됐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지탱해주는 것은 『기술개발력을 배경으로 한 하이테크제품의 경쟁력 강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看過)할수 없는 것은 이러한 세계최강의 「기술王國」 일본의 뒤에는 높은 기술개발투자와 우수한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발표된 7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 따르면 오는 96년까지 과학기술투자를 정부예산의 4~5% 수준으로 높이며, 연구개발인력은 현재의 6만6천명에서 11만2천명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로나 항만시설의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예산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비추어볼때 이러한 자구적인 노력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금액면에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한 열세에 있는 우리가 비율면에서도 절반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때, 이제 변신의 물결은 구조적인 문제로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기술개발 소홀의 문제가 연구개발 투자비의 빈약함이나 연구인력의 절대 數 부족에서만 찾을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개발자금이 투입됐으나 국산화에 대한 실적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방위산업에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투자액이나 연구인력 등 절대규모면에서의 분석에 이어, 기술별, 품목별, 업체별, 인력별의 세부적인 고찰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만약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개별적 분석이 수행되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력증강사업을 통해 여러 국제 기술협력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성공적인 결실을 보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기술협력 자체로 끝나고, 기술축적이나 개발로는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방위산업은 짧은 기간동안 조기전력화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축적과 개발에 보다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와함께 국내기술에 대한 세밀한 시장조사가 선행, 보완되어야 하겠으며, 불모(不毛)와 같던 이 땅위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개발을 이룩한 업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무기판매의 기본 전략은 무기체계를 개발할수 없으나 절대 필요한 나라에는 비싸게 판매하고, 개발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가에는 덤핑판매등을 통해 개발의욕을 상실케하거나 개발계획을 취소시켜 추후 정비유지 부품의 高價판매로 완제품값의

수십배 이익을 보장받는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우리 업체가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기술축적뿐만아니라 나아가 해외장비 구입에서 가격을 크게 인하시킬수 있는 주요요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는 M113 APC 장갑차를 꼽을수 있습니다. M113 장갑차는 최초 23만불로 판매가 제의되었으나 국내 개발계획이 승인되자 17만4천불로 인하되었으며, 국방부의 검토단계에서는 7만7천불로 가격이 인하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한 나라가 설계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전 공정을 제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볼때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한정된 자국내 소요 충족후에 해외시장 개척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防産도 핵심부품위주의 개발로 나아가야 하겠으며, 국제공동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국내기술에 대한 정밀한 조사·분석과 함께 기술판정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본의 경우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자국산 훈련기 구입에 해외조달가의 4~5배를 투자했음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사례입니다.

또한 해외기술 도입은 국내기술로는 전혀 따라갈수 없는 부문에 국한되어야 하며, 이는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수 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해외업체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기술조사와 시장조사가 수반되어 국내 기술축적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국내 방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부품 및 노-하우의 해외의존도 축소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